

광양시, 올 추석엔 무얼 먹을까?

전어의 품미· 낭만 가득한 가을 시그니처 스팟 '망덕포구' 3년 만에 열리는 광양전어축제(23~25일) 기대로 들썩



광양시가 추석을 앞두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는 한가위 미식여행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민국의 가을은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전어가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광양 망덕포구로 떴다 오면서 시작된다.

망덕포구는 고소한 가을 전어를 맛보고 율동주의 시, 별 해는 다리, 배알도 섬 정월 등의 낭만까지 두루 즐길 수 있는 가을 시그니처 스팟이다.

특히, 오는 23일부터 코로나로 멈춰있던 광양전어축제가 3년 만에 막을 올릴 예정이어서 포구는 벌써 기대로 들썩거리고 있다.

전어는 맛도 있지만 갈슘, 미네랄, 플라스테롤을 낮추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어린이들의 뼈 성장과 어른들의 혈관 건강까지 두루 챙길 수 있다.

섬진강과 바다가 만나는 망덕포구에서 건져 올린 가을 전어는 빠른 물살만큼 운동량이 활발해 탄탄한 육질과 품미를 자랑한다.

포구를 따라 즐비하게 늘어선 횡집에서는 회, 무침, 구이 등 맛갈스러운 전어 요리가 풀코스로 차려진다. 썸썸썸 썰어 구운 된장을 살짝 찍어 한입 가득 싸 먹는 전어회는 단순한 생선회가 아니라 깊게 익어가는 가을이다. 씹을수록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전어는 새콤달콤 회무침으로도 인기가 높다.

왕소금을 뿌려 노릇노릇 구워낸 전어구이는 머리까지 통째로 먹을 만큼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수운이 올라가면서 망덕포구가 아니더라

도 전어가 생산되는 곳은 늘고 있지만, 망덕포구의 품격과 품미는 따를 수 없다.

망덕포구에서 먹는 전어의 맛은 설명되지 않으며, 다만 DNA처럼 깊게 새겨져 가을이 되면 어느새 그 맛이 그리워지곤 한다.

전어에는 유쾌하고 해학적인 서사도 가득하다. 전어라는 이름에는 돈을 생각하지 않고 사 먹을 만큼 맛있다는 뜻에서 錢魚(전어), 머리부터 버리지 않고 모두 다 먹을 수 있어서 全魚(전어) 등 다양한 뜻을 담고 있다.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머리에 개가 서 말”, “가을 전어 한 마리면 햅쌀밥 열 그릇 죽인다” 등에는 풍자와 해학이 넘친다.

금강산도 식후경, 고소한 가을 전어를 실컷 맛본 후에는 포물선을 그리는 망덕포구를 따라 걸어볼 차례다.

걸어지는 그림자를 재며 걷노라면 어디선가 뱃머리에 만선 깃대를 꽂고 춤을 추며 가족이 기다리는 망덕포구로 귀향하던 ‘광양 전월 전어잡이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광양 전월 전어잡이소리(전남무형문화재 제57호)는 광양만을 중심으로 전승돼온 어로 노동요로, 섬진강 하구와 남해안 생태에 깃든 삶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지금도 1999년 결성된 ‘전월 전어잡이 소리 보존회’를 주축으로 신당마을 주민들에 의해 연행되면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망덕포구는 전라좌수영 주둔지로 배를 만들었던 역사 공간이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율동주의 친필 유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지켜낸 문학 공간이기도 하다.

율동주 유고를 보존한 정병욱 가옥엔 당시 보존 상황이 재현되어 있고 유고시집에 담긴 31편의 시를 모두 돌에 새긴 ‘율동주 시 정원’은 여행자의 시심을 한껏 자극한다.

정구영 관광과장은 “봄 도다리, 가을 전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어는 가을을 대표하는 먹거리이며, 해마다 전어축제가 열리는 망덕포구는 전어를 가장 운치 있게 먹을 수 있는 장소이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 조경 관계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 세계 조경 관계자 35명 순천만국제정원 둘러보며 2023정원박람회 기대감 표명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최근 프랑스, 스웨덴 등 세계 각국의 조경 관계자 35명이 순천만국제정원을 방문해 순천의 정원을 만끽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광주에서 열린 제58차 세계조경가대회 종료 후 순천의 정원을 연구하고자 이뤄졌다.

조경 관계자들은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순천만습지와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인 순천만국제정원을 둘러보고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에 감탄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순천만국제정원의 정원디자인과 나무식재, 식물 유지관리 등에 관심을 보였고,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표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 위기로 정원의 역할과 가치는 더욱 커져가고 있어 세계 각국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그린 뉴딜의 선도 도시 모델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삼동지구' 브랜드 명칭 공모

오늘부터 21일까지

여수시가 오는 21일까지 '여수국가산업단지 삼동지구'의 브랜드 명칭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미래 신성장산업 연구개발 및 지원을 통해 산단 혁신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삼동지구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삼동지구는 여수국가산단과 연계한 지원시설 산업단지, 2017년 조

성을 시작해 2019년 6월 57필지를 조성 완료하고 현재는 분양 중에 있다.

2019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호남본부' 이전을 시작으로 '한국화학연구원 센터', '전남테크노파크 센터' 등 연구개발 기관들이 속속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시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브랜드 명칭을 선정하고, 산업단지 홍보와 각종 시설물 제작에 활용할 예정이다.

여수=기동취재본부

고흥군, 농촌문화체험 팸투어 도시민 '큰 호응'

고흥군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25명을 초청해 '농촌문화체험 팸투어'를 인기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농촌문화체험 팸투어는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생활 여건과 귀농귀촌 제도를 소개하고, 귀농 선도농가를 방문해 정착 노하우 청취 및 문화체험 등을 통해 귀농귀촌 희망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팸투어는 귀농귀촌 선도농가를 방문해 귀농귀촌 준비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직접 청취하고 생산에서 제조·판매까지 이어



지는 6차산업 현장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 귀농정착도우미와 소통을 통해 귀농귀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고흥의 정정자 연과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프로그램까지 더해져 호응이 높았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보성군, 2022년 추석 연휴 '24시간 종합상황실' 가동

보성군은 고흥을 찾는 귀성객들과 군민이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을 추석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본청 8개 반 69명, 12개 읍면 48명 등 총 117명이 근무하며, 코로나19 방역,

교통·물가·연료공급, 가축방역, 환경, 보건, 재해·재난·안전 등 8개 분야를 관리한다.

보성군에서 관리하는 각종시설 16개소는 4개 부서 252명의 근무 인력이 투입된다. 율포해수욕장센터, 보성작은영화관, 제암산자연휴양림, 전남권환경정질향상 예방관리센터, 비봉공룡공원 등은 추석 당일에도 휴무 없이 운영된

다.

명절 대목 물가안정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추석 성수품 등 농축산물 총 638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점검 등을 중점 관리한다.

특히, 보건소, 보건진료소, 종합병원 등 응급의료기관 진료 대책을 통해 응급실 운영과 구급차 대기 등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당번 약국 지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보성=김덕순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